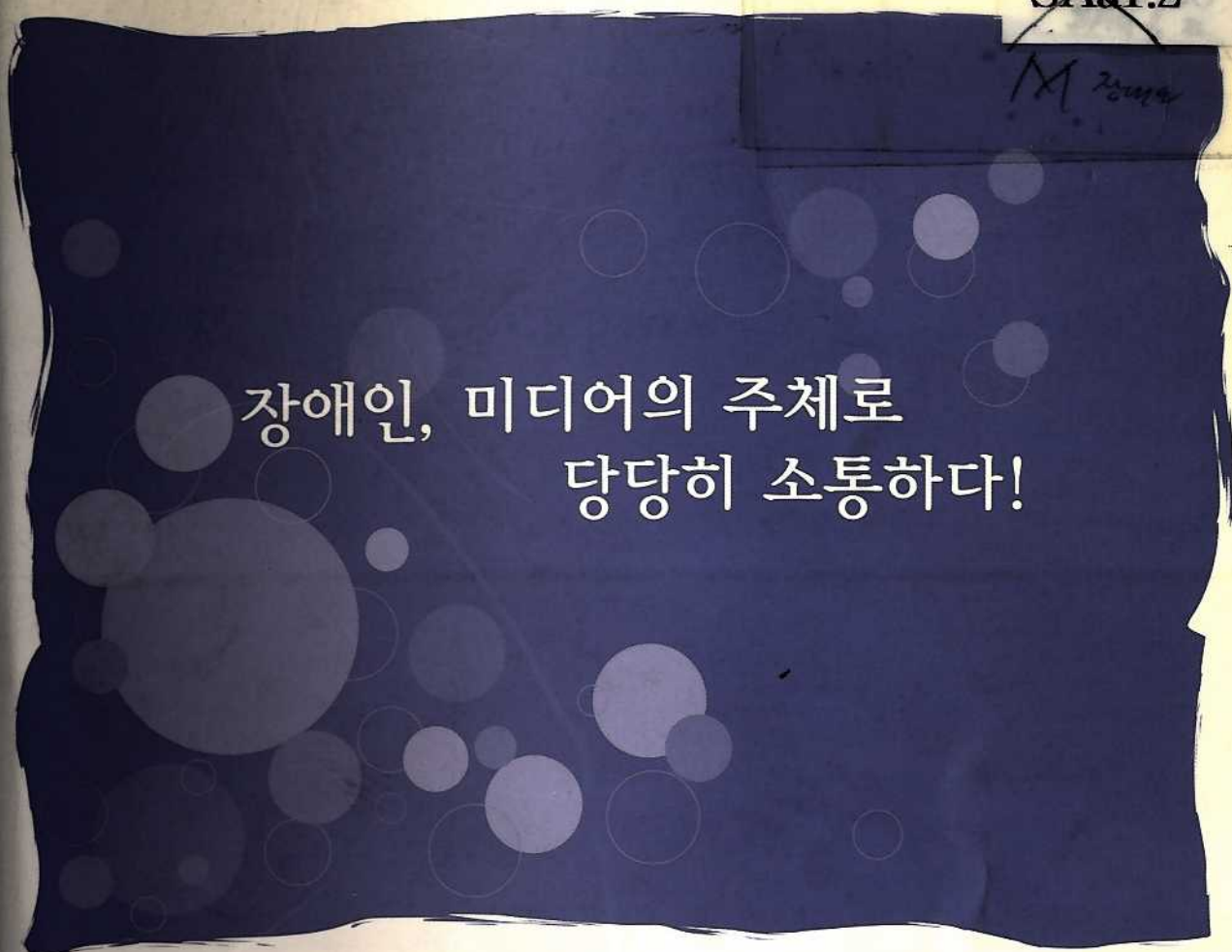


한국정보자료실
SAa1.2

M 2004



2004 장애인 방송모니터링과 퍼블릭엑세스 교육사업 보고서



장애인, 미디어의 주체로
당당히 소통하다!

2004
장애인 방송모니터링과
퍼블릭엑세스 교육사업 보고서

장애우민화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tel.02-521-5364, 2675-8671 fax.02-584-7701
www.cowalk.org/culture@cowalk.org

SAa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2004년 장애인 방송모니터링과 퍼블릭액세스 교육사업 보고서

“ 장애인,
미디어의 주체로 당당히 소통하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목 차

✓ 방송모니터

가. 활동보고	7
-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소개	7
- 모니터 활동 및 운영	7
나. 모니터 실습교육자료	9
- 영상용어의 이해	9
- 영상 읽기	15
- 보도 및 교양 모니터 방법론	18
-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23
다. 모니터 보고서	32
-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보고서	32
-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보고서	41
- 사랑의가족 보고서	62

✓ 퍼블릭액세스 교육

가. 교육소개	97
나. 교육내용	98
- 초급 1차 교육커리큘럼	98
- 초급 2차 교육커리큘럼	99
- 중급 교육커리큘럼	101
다. 교육평가	103
라. 강의자료	105
- 다큐멘터리 기획에서 배급까지	105
- Windows Movie Maker 편집 툴 사용법	133

✓ **종합토론회**

가. 개요 147

나. 강의원고 149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전개해 온 여성주의적 미디어운동의 성과와 과제 .. 149
- 장애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과 언론의 활용 167

다. 토론원고 180

- 외국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180
- 장애 대상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85

✓ **부 록**

가. 모니터단 회의록 모음 193

나. 퍼블릭액세스 교육 수강생 소감 모음 223

방송모니터

● **활동보고**

-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소개
- 모니터 활동 및 운영

● **모니터 실습교육자료**

- 영상용어의 이해
- 영상 읽기
- 보도 및 교양 모니터 방법론
-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 **모니터 보고서**

-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보고서
-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보고서
- 사랑의가족 보고서

방송모니터

가. 활동보고

○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소개

장애우방송모니터단은 장애인권적 관점에서 장애 왜곡 내지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비판하고 장애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장애에 상관없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지향한다. 그리고, 장애계에서 유일하게 모니터하는 회원 중심 조직으로, 주로 장애 관련 프로를 모니터하였다.

○ 모니터 활동 및 운영

■ 방송모니터단 운영

- 기 간 : 2004년 4월 ~ 11월
- 장 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 대 상 : 1~4기 장애우방송모니터단 10명
- 회 수 : 30회, 모니터 보고서 관련 회의 2회
- 내 용
 - 모니터단 역량 강화를 목표로 모니터 전문인력(백수정/서울 YMCA 어린이영상문화 연구회 미디어교육 팀장)이 모임에 결합하여 모니터 보고서 작성에 중점을 두었다.
 - 서울YMCA 모니터 모임을 탐방하여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임, 자극을 공고히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고 인맥을 형성하였다.
 - 상반기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 프로 보고서,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보고서, 하반기 사랑의가족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방송모니터 실습교육

- 기 간 : 2004년 6월~9월
- 장 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 대 상 : 활동 중인 모니터단
- 횟 수 : 4회
- 내 용

일 시	주 제	강 사
6/3	1차 영상용어의 이해	백수정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미디어교육팀장)
7/22	2차 영상읽기	
8/19	3차 보도 및 교양 모니터 방법론	
9/20	4차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 성 과

- 3월 “장애인과 언론” 특집 《내일은 푸른하늘》 라디오 방송 출연
- 4월 SBS 음부즈맨 프로그램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출연

■ 모니터단 사람들

김정희, 김재우, 김주영, 김언식, 김순재, 목미정, 방재웅, 이정은, 이태준, 송효정, 최영식, 정창욱, 예옥주, 한현목, 홍승아, 백수정, 김민경, 임소연 (총 18명)

나. 모니터 실습교육자료

[실습교육1] 영상용어의 이해

- 교육목표: 영상용어와 표현 방법에 대해 안다.
- 교육자료: 한국 영상 진흥원 - '카메라 워크의 기초.' 비디오.
- 교육내용: 영화나 TV는 영상언어로 말한다. 즉 영상용어나 영상이 가지는 표현방법을 읽는다는 것은 영상물의 모니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또 다른 관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영상용어나 표현기법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

1. 동작의 유형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는 영상을 훌륭하게 꾸미기 위해 세가지로 동작의 유형(Types of Motion)을 두고 연기자의 동작을 <프라이머리 모션> 또는 <이벤트 모션>이라 하고, 카메라의 동작을 <세컨더리 모션> 또는 <카메라 모션>, 편집 테크닉을 <터서리 모션> 또는 <에디팅 모션>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제 1 동작

제1의 동작(Primary Motion, Event Motion)이란,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동작이나, 연기자의 연기 및 피사체의 움직임을 말한다.

2. 제 2 동작

제2의 동작(Secondary Motion, Camera Motion)이란, 피사체를 향하는 카메라 자체의 움직임을 말한다. 즉, 카메라의 팬(Pan), 틸트(Tilt), 페디스틀(Pedestal), 크레인(Crane), 붐(Boom), 달리(Dolly), 아크(Arc), 이밖에 줌(Zoom)도 포함된다.

3. 제3 동작

제3의 동작(Tertiary Motion, Editing Motion)이란, 편집작업을 말한다. A 카메라에서 B 카메라로 장면을 전환하는 카메라의 스위칭, 컷, 디졸브, 와이프, 페이드, 믹스, 그밖에 녹화 테이프 등이 포함된다.

II. 카메라 앵글과 줌

1. 카메라의 앵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의 앵글은, 선자세의 눈높이 정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카메라의 앵글과 카메라의 포지션을 바꾸어서 촬영하면 분위기가 다른 비디오 영상을 다채롭게 연출해낼 수 있다.

비디오촬영에서 쓰여지는 앵글을 보면,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수평앵글, 위에서 바라보며 촬영하는 하이앵글, 아래에서 위를 향해 촬영하는 로우 앵글 등 세가지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바꾸어 촬영하면 뛰어난 영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수평 앵글(Eye Angle)

피사체를 수평으로 본 앵글로, 이 앵글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렌즈를 수평으로 향한 것으로, 이 앵글의 특징은 찍는 사람, 찍히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가 평등한 입장이 되는 앵글이다.

2) 하이 앵글(High Angle)

피사체를 위에서 본 앵글로, 사람을 찍을 경우에는 찍히는 사람이 왜소(矮小)하게 보이는 것은 물론, 사람을 내려다 보는 위압적인 그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찍을 땐 피해야 할 앵글이다. 하이앵글은 주로 꽃을 찍을 때나 사람이 보아서 편리한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좋다.

3) 로우 앵글(Low Angle)

피사체를 아래에서 위를 향한 앵글로써, 이 그림의 특징은 존경과 부러움이나, 사람을 돋보이게 찍을 곤잘 사용되는 앵글이다. 우리의 유명한 조상의 동상이 모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 존경스러워 할만하다.

2. 카메라의 포지션

카메라의 포지션은 촬영할 때의 높이를 말한다. 사람이 서서 촬영을 한다면, 그때의 카메라 포지션은 그사람의 눈높이가 촬영의 포지션이 된다고 해서 아이 포지션(Eye Position)이라고 부른다.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촬영한다면, 로우 포지션(Low Posion)이 될 것이고, 반대로 눈높이 보다 더 높은 위에서 촬영할 때는 하이 포지션(High Posion)이라고 한다. 사람을 찍을 때에 가장 좋은 앵글과 포지션은 눈높이에서의 영상이 편안하다.

3. 줌

1) 줌을 사용하는 목적

- (1) 크게 찍고 싶을 때(보이고 싶은 때)
- (2) 강조하고자 할 때
- (3) 인상적인 때
- (4) 주인공이 하는 일을 보여줄 때
- (5) 위치를 나타낼 때
- (6) 화면의 흐름을 강조할 때
- (7) 도입부의 장면(줌업) 또는 라스트 신(줌백)
- (8)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낼 때(슬로우 줌)
- (9) 충격적인 것을 묘사할 때(빠른 줌)
- (10) 경쾌한 감정을 나타낼 때(가볍게)
- (11) 묵직한 느낌을 나타낼 때(슬로우 줌)
- (12) 화면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
- (13) 고정적인 화면 도중에 변화를 주기 위한 때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용어와 동작

(1) 줌 업(줌인)

줌업(줌인)(Zoom Up, Zoom In)은, 광각측(단초점거리)에서 망원측(장초점거리)으로 연속시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카메라의 줌레버를 조작해서 12mm에서 70mm로 이동하는 것이다.

(2) 줌 아웃(줌백)

줌아웃(줌백)(Zoom Out, Zoom In)은, 줌업과 반대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카메라의 줌레버를 조작해서 70mm에서 12mm로 이동하는 것이다.

3) 표현방법

(1) 줌 업(줌인)

피사체를 점차 클로уз업으로 당기는 기법으로서, 주변의 상황을 나타내면서 일정한 피사체만을 클로уз업시켜서 보는 이에게 사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야구경기 중 투수의 공던지는 모습을 클로уз업해서 투수가 그 경기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는 이의 관심을 더 한층 불러 넣게 한다. 이와 같은 기법은 크게 보이고 싶을 때, 어떠한 일을 강조하고자 할 때, 주인공이 하는 일을 보는 관객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데 있다.

(2) 줌 아웃(줌백)

피사체를 클로уз업했다가 점차로 피사체를 멀리 하는 기법으로서, 작동상으로 줌아웃은 줌인과는 정반대이며, 표현상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야구선수의 공던지는 모습을 줌업하였다가 점차로 줌아웃하여 투수 전신의 모습을 전부 보여주어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는 의외성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화면에 입체감이나 원근감을 표현할 때 효과적이다.

III. 샷의 타임 런닝타임

1. 샷의 종류

1) 샷

샷(Shot)은 영화나 텔레비전 작품에서의 가장 작은 구성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디졸브(Dissolve)나 와이프(Wipe) 등과 같은 영상변화를 처리할 때, 장면변화의 이음새 역할을 한다. 또한 샷은 <컷>이라는 의미와도 같아서 하나의 샷, 하나의 컷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컷>은 카메라 버튼을 스타트해서 화면이 스톱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샷 타임>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며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화면의 크기나 앵글, 화면의 내용 등을 말하기도 한다.

2) 씬 타임

씬 타임(Scene Time)은 샷 타임과 샷 타임이 모여서 하나의 씬을 이룬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씬 속에는 여러 개의 샷이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또한 씬 타임은 시퀀스 타임(Sequence Time) 중에서의 어느 한 부분을 일컫는 말로서, 시퀀스 타임보다 적다.

3) 시퀀스 타임

시퀀스 타임(Sequence Time)은 씬 타임과 씬 타임이 모여서 이룬 것으로, 런닝 타임(Running Time) 중에서의 어느 한 부분으로, 여러 개의 짧은 장면과 런닝 타임 속의 일부분이 된다.

4) 런닝 타임

런닝 타임(Running Time)은 여러 개의 시퀀스 타임이 모여서 연속된 시간에서의 어느 작품의 객관적인 존립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From ~ To)의 위치를 말한다. 또한 이것은 텔레비전의 쇼(Show)나 필름 전체의 길이, 연속된 전체의 시간을 말한다.

* 가장 많이 쓰이는 인물 샷의 크기

카메라로 인물을 찍을 때에 가장 보기에 좋고 화면의 크기에 안정적인 화면에 다음과 같은 샷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다.

** 인물촬영에 많이 쓰는 샷

1. 업 샷(Up-Shot)

얼굴 샷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샷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2. 버스트 샷(Bust Shot)

가슴 샷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샷은 텔레비전에서 가장 친근한 샷으로 인물의 해상도가 좋고 안정적인 샷의 크기이다.

3. 웨이스트 샷(Waist Shot)

허리 샷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샷은 버스트 샷과 같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샷은 인물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물과 인물주위의 상황을 함께 알리는데 좋다.(웨이스트 샷으로 인물을 찍을 때에는 주위의 밝은 배경으로 인물이 어두워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4. 풀 샷(Full Shot)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설명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특히 회의장 풍경이나, 경기장 등을 배경으로 할 때 많이 쓰인다.

[실습교육2] 영상 읽기

- 교육목표: 영상언어로 만들어지는 영상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다.
- 교육자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중 '은찬이와 금찬이의 젓가락 행진곡', '은경소녀 성장기'
- 교육초점: 카메라의 앵글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의 앵글은, 선자세의 눈높이 정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카메라의 앵글과 카메라의 포지션을 바꾸어서 촬영하면 분위기가 다른 영상을 다채롭게 연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촬영에서 쓰여지는 앵글을 보면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수평 앵글, 위에서 바라보며 촬영하는 하이 앵글, 아래에서 위를 향해 촬영하는 로우 앵글 등 세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1. 하이 앵글(High Angle)은 피사체를 위에서 본 앵글로 사람을 찍을 경우에는 찍히는 사람이 왜소(矮小)하게 보이는 것은 물론, 사람을 내려다 보는 위압적인 그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찍을 땐 피해야 할 앵글이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죄책감이나 상대에게 위압감을 보여줘야 될 상황을 영상적으로 시청자에게 이해시켜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카메라 기법 중에 하나이다.

2. 로우 앵글(Low Angle)은 피사체를 아래에서 위를 향한 앵글로써 이 그림의 특징은, 존경과 부러움이나 사람을 돋보이게 찍을 때 곧잘 사용되는 앵글이다. 우리의 유명한 조상의 동상이 모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 존경스러워할 만하다.

이 카메라 기법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었다.(파시즘) 특히,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 등이 높은 단상 위에서 많은 군중들을 앞에 두고 연설할 때 자주 활용되었던 영상기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로우 앵글 샷의 영상효과를 의도적으로 자주 활용했고

이 효과를 톡톡히 본 인물들이었다.

3. 수평 앵글(Eye Angle)은 피사체를 수평으로 본 앵글로 이 앵글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렌즈를 수평으로 향한 것으로 이 앵글의 특징은 찍는 사람, 찍히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가 평등한 입장이 되는 앵글이다.

■ 교육내용:

1. 카메라 앵글의 위치와 상황이 적절치 못해 만들어지는 영상이미지

사례) '은찬이와 금찬이의 젓가락 행진곡' - 장면분석

은찬이와 금찬이가 심리 상담을 받는 장면에서 금찬이, 은찬이를 잡은 카메라의 위치는 하이 앵글 샷인 반면, 상담과정에서의 전문를 잡은 카메라 위치나 상담이 끝난 후, 전문의가 두 아이의 현재 심리상태를 말해주는 장면에서도 하이 앵글로 담아주고 있었다.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카메라 앵글의 위치가 좀더 배려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심리치료사와 아동상담자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여야할 뿐더러 심리치료사는 위압감과 위엄보다는 안정감과 평등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수평 앵글로 잡아주었다더라면 주인공의 상황이나 입장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또한, 시청자로 하여금 아이들의 입장과 상황을 영상적으로 좀더 객관화시켜서 들여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2. 주인공의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카메라 워크

사례1) '은경소녀 성장기' - 장면분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진의 진단 후, 엄마의 심정을 들여보는 장면, '내가 조금만 일찍 병원에 데려왔으면....', 하고 고개를 떨

구는 장면에서 하이 앵글로 처리함으로써 엄마의 마음에 죄책감을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사례2) '은경 소녀 성장기' - 장면분석2

은경이 엄마가 과거를 털어놓지 못한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혼했던 과정을 이야기 할 땐 수평 앵글로 잡아주었고, 은경을 딸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는 엄마의 눈물과 함께 서서히 하이 앵글로 잡아주고 있었다.

이혼문제보다는 딸을 인정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보다 더 회한으로 느껴지는 엄마의 모성애를 영상으로 잘 표현해준 장면이었다.

이렇게 은경소녀 성장기는 전반적으로 영상언어로서의 엄마의 죄책감, 회한, 참회, 극복의지를 시청자에게 적절히 전달해 주는 듯 했다.

3. 영상을 통한 고정관념

이렇게 카메라 앵글의 위치가 상황과 잘 맞춰진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주지만, 적절하지 못했을 때는 시청자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특히, 픽션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카메라기법의 활용은 극적상황을 연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청하지만 이렇게 논픽션이 강한 시사교양이나 다큐 부분의 경우는 영상적으로 담아내는 것들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내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을 통한 고정관념 만들기엔 여과없이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연출과 진행과정에서 좀더 주인공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황을 배려한 노력들이 영상에서 표현되었으면 한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등의 프로그램들의 모니터의 관점은 영상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영상적으로 왜곡된 모습들은 없는지에 대한 관점도 나레이션이나 구성의 모니터링보다 더욱 중요할 지도 모른다. 어차피 영상물은 카메라 속에서 세상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는 매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세상 보는 시각을 좁힐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영상언어를 읽을 수 있는 모니터의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실습교육3] 보도 및 교양 모니터 방법론

- 참고 자료: 방송 모니터 길라잡이/ 민영목/ 커뮤니케이션 북스.

1. 바람직한 모니터링 자세

- 프로그램을 해부하고 비교분석 능력을 기를 것

그렇다면 사전에 많은 프로그램과 신문, 잡지,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보도나 교양프로그램들은 인상평을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해부하고 분석적인 작업이 무엇보다 뒷받침돼야 하고, 한 프로그램을 여러번 제시청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자신 스스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객관적이고 세밀한 모니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단순지적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대안이나 방향제시를 염두에 둘 것

방송 모니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올바른 방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제작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가질 것

빠른 화면이나 여러 특수효과들로 문제 화면이나 대사 등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 그래서 녹화작업이나 VOD를 활용하여 미심직은 부분을 재차 확인해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옛말도 있듯이.

- 자기의 모니터링 결과들을 모아두어 자료로 활용할 것

또하나의 자료집으로 의미가 있기도 하고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이나 장수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할 경우 활용하면 비교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필기도구를 항상 준비해 두고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길 것

기억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록에는 망각이 없다. 기록하는 습관은 모니터링의 기본이다.

- 그 외, 방송법 숙지, 집중력, 객관성, 방송 시스템이나 제작진들의 에환을 이해하려는 노력 등의 자세가 필요하다.

2.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 모니터링 TIP

가. 보도 및 교양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공통적 TIP

- 관점을 갖는다.

* 철학적 관점: 특히, 소외계층이나 소수자의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들을 모니터할 경우엔 왜곡된 모습들로 인해 방송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지적할 때, 철학적 배경을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이다.

* 기술적 관점: 편집, 진행 및 연출은 적절하고 신선한가/ 카메라 앵글이나 워킹은 적절한가/ 세트, 조명, 음악, 음향, 자막, 이벤트 등에 완성도는 있는가/ 캡션, C.G 등에서 오류는 없고 활용은 적절한가/ 비디오와 오디오에서 기술상태는 좋은가 등등.

* 각 방송사의 심의 규정이나 제반 법규적 관점: 방송법이나 여러 제반적 법규를 모르고 방송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두고 가는 격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제작진을 상대로 할 때는 방송법령이 우리에게겐 곧 무기인 셈이다.

나. 장애 관련 보도 프로그램 모니터링 TIP

- 보도 프로그램의 유형을 알아야 한다.

뉴스, 뉴스해설, 기획보도, 기자회견, 뉴스매거진, 시사적 사건의 현장 중계, 시사 다큐, 기상 정보 등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본다. 이 유형 분류로 본다면 사랑의 가족이나 희망풍경에서 장애계의 소식을 전하는 코너들도 보도프로그램과 맥이 같다고 볼 수도 있겠다.

특히, 장애관련 보도내용을 모니터링 할 때는

- 일반 보도 및 속보에서 할 때 장애인권 침해나 장애 왜곡 사례 판단
- 시의 적절성, 즉 뉴스아이템에서 반영되지 못한 장애 이슈에 대한 지적
- 기획취재물의 경우 공익성 있는지와 구성에서 깊이와 밀도가 있는지
- 시청률을 의식하여 선정적이거나 역정보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 국제적이거나 국가적 행사임에도 장애인 행사라는 이유로 보도에서 밀리거나 제외된 것은 없는지
- 뉴스에서 장애관련 보도의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다. 장애 관련 교양 프로그램 모니터링 TIP

- 교양 프로그램의 유형을 알아야 한다.

다큐멘터리, 대담, 토론, 교육 목적의 만화, 인형극, 교육목적의 퀴즈나 게임, 학습프로그램, 생활정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장애관련 프로그램들은 주로 다큐멘터리나 메시지를 담은 정보프로그램들이 많다. 장애인의 날 특집프로그램들은 대담이나 토론을 중심으로 한 교양물과 휴먼 다큐멘터리가 주로 방송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특집 드라마도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교양프로그램을 모니터 할 경우에는 보도프로그램과 달리

- 철학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적절성
- 일반 시청자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애를 사회적 이슈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는가가 모니터링의 핵심
- 기획의도가 잘 나타나는지
- 편성시간대에 문제점 제기
- 모니터하기 위한 기준점을 구체화
- > 인권, 정책, 복지, 장애영역별로 모니터링 틀 필요

[부록] 모니터링 기준의 예로 별점평가

장애인 프로그램 별점 평가 기준

아이디어, 구성 및 대본, 연출, 대상적절성 각각 10점 만점으로 40점이 만점이다.

이것을 다시 8로 나눈다. 그래서 별점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이면 추천프로그램으로 한다.

(이 기준은 독일에서 열리는 프리쥬네스라는 국제 우수 어린이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사용하는 심사기준들을 장애인 프로그램에 맞춰 만든 기준틀임)

1) 아이디어

- 기획의도가 신선한가요?
- 전체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나 볼거리들로 흥미로운가요?
-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볼 수 있었나요?
-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점이 있었나요?
- 대안이나 문제해결과정이 새로운가요?

2) 구성 및 대본

- 무슨 이야기인지 잘 전달이 되었나요?
-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산만하지는 않았나요?
- 내용이 억지스러운 부분은 없었나요?
- 등장인물들의 심리상태는 객관적으로 잘 표현했나요?
- 등장인물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었나요?
- 대화내용이나 캐릭터(등장인물)의 행동에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는 없었나요?

3) 연출

- 프로그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그림)을 잘 이용했나요?
- 화면의 속도가 내용을 전달하는데 적당했나요?
- 화면으로 보니 책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었나요?
- 음악이나 음향효과가 분위기를 잘 살려 주었나요?
- 등장인물들이 연기를 잘 했나요?
- 장애인을 배려한 연출(카메라 위치, 각도 등)이었나요?

4) 대상 적합성

-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주 시청대상에게 명확히 전달되나요?
- 주 시청 대상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어떤 도움되는 것이 있었나요?
- 주인공들을 존중 혹은 배려하고 있었나요?
- 주인공들을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시키고 있었나요?

[실습교육4]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시민단체 방송모니터 보고서 작성 요령)

1.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시민단체 방송모니터팀의 작업은 매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이나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뤄지는 일종의 집단적 모니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 방송모니터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식 도출이나 목표설정은 가장 기초단계이면서도 기본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내실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모니터 방향을 설정한 뒤 모니터링한다.

이 때는 문제의식이나 목표설정을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택할 것인지, 유사한 장르나 포맷의 프로그램을 비교할 것인지, 같은 시간대 등 대응 편성된 프로그램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후, 기간과 이원을 할당한 뒤 어떤 시각위주로 모니터링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분석을 위한 유목표나 틀을 작성해 모니터링을 한다.

3. 모니터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한다.

모니터 결과를 가지고 전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자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의견은 가능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의견 위주로 토론을 거쳐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작성자는 막연히 좋았거나 나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왜 좋았는지, 혹은 왜 나쁜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한다.

*** 작성요령:**

- 1) 세부적인 내용을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적한다.
 - 특히, 코너가 많은 프로그램일 경우도 그냥 코너순으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지적 거리가 크고 중대한 문제부터 지적한다.
- 2) 모든 지적은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모니터 보고서는 감상적으로 쓰는 수필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보고 하는 일종의 소논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3) 개선 방안 등 대안제시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 방송모니터의 궁극적 목표는 바람직한 방송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제시나 올바른 방향제시 등을 해주면 더욱 깊이 있는 보고서가 될 것이다.

4. 보고서 발송 등 여론화 작업을 통해 피드백 획득에 주력한다.

애써 마련한 보고서가 제대로 사회나 방송사에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 모니터팀들은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가 해당 제작진이나 경영진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5. 모니터링 결과 및 보고서 작성의 예

*** 모니터 결과의 예**

408회 사랑의 가족 모니터링
(방영일시: 2004. 9. 4)

■ 코너별 모니터링

++ 해피통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장애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 정인지체 탁구대회, 정인지체 소리울림밴드 공연, 중도장애인의 재활가이드북 소개
- ⇒ 소리울림의 경우 기존에 정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촬영으로 생동감있게 전달하여 흥미 유도

++ 내일은 희망

장애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 정인지체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라산 등정기 소개
- ⇒ 정인지체장애인의 경우 행동하는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산하는 즐거움보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강조

예) 나레이션 “눈물없이 볼수 없는 도전기”

“다들너무 힘든 모습이었습니다.-3번 반복”

“불가능을 극복하고 도전기에 성공한 이 기분”

스튜디오 MC 멘트 “풀어주고 밀어주고 세상의 편견에 대한 도전장”

- ⇒ 다니엘 복지원을 이용하는 성인 장애인에게 “친구”란 단어 사용은 부적절한 표현
- ⇒ 장애인의 동반을 방송소재로 할 때 대부분 장애에 따른 불편함을 강조, 도전이라 표현, 신파조의 나레이션과 음악 일색, 이는 본 프로가 장애 대상 프로그램임에도

여타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어 문제

⇒ 이보다 자연친화적, 자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모습, 느낌을 담고 등산 뿐만 아니라 등산을 하기 위한 사전 훈련과정을 보여주는 등 이벤트성을 탈피하여 영상에 자연스럽게 담는 것이 바른 접근

+:+ 함께하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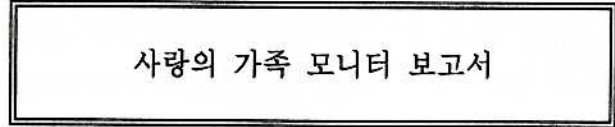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 ⇒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의 문제점을 다룸
- ⇒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배경, 중도장애가 될 경우 자격증 박탈, 경찰청 면허계장 인터뷰를 통한 대안 모색까지 장애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룸
- ⇒ 평등권과 생존권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 전체적인 문제점

- 정신지체인 인터뷰시 리포터가 성인을 “어린애” 취급
- 석준 씨의 자리배치가 바뀜. 이는 제작진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장애를 더 부각시켜 보이는 방향으로 보이기 하여 배려가 아쉬움
- 정보제공은 충분히 하고 있으나 미답일 경우 인권감수성이 떨어짐

* 모니터 결과에서 보고서화시킨 예문



I. 모니터 방법

- 평가방법: 내용 평가
- 모니터 대상: 2004년 9월 4일(408회분)
- 모니터를 해주신 분들: 장애우 모니터모임
- 정리자: 백수정

II. 모니터 내용

▶ 408회분 주요 내용

1. 해피통신 코너

정신지체 탁구대회, 정신지체 소리울림밴드 공연, 중도장애인의 재활가이드북 소개

2. 내일은 희망

정신지체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라산 도전기 소개

3. 함께하는 우리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 불가

Ⅲ. 모니터 결과

1. 긍정적인 평가

첫째, ‘해피통신’ 코너의 역동적 연출에서 이 프로그램의 힘을 엿볼 수 있다.

사례) ‘해피통신’ 코너 - 정신지체 탁구대회, 정신지체 소리울림밴드 공연, 중도장애인의 재활가이드북 소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애인들의 행사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해피통신 코너와 교육이나 직업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알림방 코너를 구성해 놓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알 권리에 부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해피통신에서의 소리울림밴드 공연 소식은 기존에 정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연출로 생동감있게 전달하여 코너의 특성을 잘 살려내 주고 있다. 또한, 정보전달차원을 넘어 시청하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자극시킬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안으로 안으로!!” 가 아닌 “밖으로 밖으로!!” 를 대신 외쳐주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방송 본연의 역할인 것이다.

둘째, 적합한 논제와 심층적인 취재로 보도 방향 돋보인다.

사례) ‘함께하는우리’ 코너 -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의 문제점을 다룸

‘함께하는우리’ 는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코너다. 즉,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장애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코너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08회의 ‘함께하는우리’ 에서는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 듯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 우선,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던, 그러나 꼭 알고 있어야 했던 문제인 ‘청각 장애인 1종 면허 취득 불가’ 란 논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문제를 풀어감

에 있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배경부터 중도장애가 될 경우 자격증 박탈, 경찰청 면허계장 인터뷰를 통한 대안 모색 까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다뤄주고 있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입장, 정책담당자의 입장, 전문가의 인터뷰 등의 자료화면을 구성해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접근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대안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취재방향이 돋보였다. 더불어, 이 문제를 장애인의 평등권과 생존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부정적인 평가

첫째, 제작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시각적 접근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례) 성인장애인에게 어리게 취급하는 태도나 호칭문제라든가 나레이션, 리포터의 인터뷰 대상에 대한 태도, 한라산을 등장하는 장면에서의 힘들어하는 얼굴모습만 여러 차례 클로즈업시키는 의도적인 연출 및 편집 등이 보여졌다.

이렇게,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어리게하고 나약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들만 보여주다 보면, 격리된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나 부담스런 존재, 알봐도 되는 사람들이란 잘못된 인식들을 전파시키는 역할들 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한라산 도전기를 소개하는 전체적 흐름이 장애 대상 프로그램임에도 일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담아내는 시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장애관련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차별성 없는 연출이나 구성, 신중하지 못한 접근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시청자들의 뇌리 속에 오히려 더욱 뿌리깊이 박혀 편견의 잣대로서 일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 신파조로 일관된 멘트 - 지나친 감성적 연출

사례) 리포터의 첫 소개 멘트: “눈물없이 볼 수 없는 도전기”

힘들어하는 모습들과 겹쳐지는 멘트: “다들 너무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 3
번 반복

정상에서 리포터의 멘트: “불가능을 극복하고 도전기에 성공한 이 기분”

스튜디오 MC 멘트: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상의 편견에 대한 도전장”

신체장애인의 동반을 방송소재로 할 때는 등산의 즐거움보다는 장애에 따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제작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신체장애의 경우 등산 자체가 어려운 도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라산 도전에 참가했던 정신지체장애인들은 행동적 제한이 거의 없는 비장애인과 비슷한 조건이었고 애초에 한라산 도전의 의미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시설생활에서 독립하기 전에 용기를 내고자 산행을 계획했다. 그렇다면 화면 속 그들은 자연 속에서 세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현상만을 읽어주는 객관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전 훈련과정이나 계획을 세울 때의 설레임 등의 대화 내용을 담아내 주었으면 훨씬 생동감도 있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융화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신파조 일색의 멘트와 연출로 구성되었을 경우 자칫 그들의 도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지는 않을까란 아쉬움이 든다.

IV. 제 언

1. 제작적 차원에서 의도적 연출이 필요하지만 제작진의 인식의 잣대로 연출되어진 화면보다는 좀더 장애인 입장에서 신중하고 존중되어지는 영상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러한 장애관련 프로그램에서조차 잘못된 편견들을 타파해주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사회에서는 더욱더 장애인들에 설 자리는 좁아져만 갈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장애관련 프로그램의 역할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어울림이다.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의 바탕아래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주는 역

할이 정말 필요하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다 활기차고 당당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 산이란 소재를 장애인들이 도전해야 할 사회의 편견의 벽으로 상징화시키기보다는 친화적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큐 중엔 자연에 도전하는 아이템으로 제작되어진 작품들도 많다. 이러한 아이템이 지향해야될 방향은 자연친화적 즉, 자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자연 치유적 입장을 자연스럽게 담아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번 ‘한라산 등정기’ 처럼 도전기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존의 전개방식은 시청자들이나 장애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제작진들이 빨리 인식해줬으면 한다. 앞으로 극복차원에서의 이벤트성을 탈피한 자연의 아름다운 영상과 더불어 그것을 만끽하며 즐거워하는 자연친화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전하는 장애인들과 시청자 사이의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모니터 보고서

○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보고서

특집프로그램을 진단한다

-공중파 방송 3사 장애인의 날 특집 프로그램 질적분석을 중심으로-

송 호 정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인구의 10명중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는 농촌인구의 배가 넘는 수이다. 하지만 아직 사회는 이들을 숫자만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농촌이나 어촌은 언제나 드라마나 뉴스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곤한다. 매스컴에서 이러한 배경은 그 누구에게나 자연스럽지만,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장애인의 모습은 ARS의 자막과 늘 함께다. 즉, 방송에서의 장애인의 위치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TV에서 볼까말까한 이들이 대거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있다. 바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다.

매스컴마다 이날만 되면 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을 하는 모습, 장애인들에 대한 사실들을 매체를 통하여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게도 부정적이게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장애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회의 인식과 “평범한 우리의 이웃”으로 비추어 달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손을 들어주는 편향적 방송이었다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대적으로 기획한 방송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기획되었고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더불어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공중파 방송사가 제공하는 장애인의 날 특별프로그램을 모니터 하였다.

II. 모니터 개요

1. 모니터 기간 : 2004년 4월 18일 ~ 2004년 4월 20일
2. 모니터 대상 : KBS1 연중기획 나눔 “우리 함께 가요”
MBC “2004 함께 가는 세상”
SBS “나는 나가고 싶다.”
3. 모니터 방법 : 질적 분석

※ 각 방송사 별로 기획방송의 차이와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 특집 행사 방송 중심의 방송만을 선택하였다.

III. 모니터 내용

1. 방송사별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의 비교

	KBS1 우리 함께 가요	MBC 2004 함께 가는 세상	SBS 나는 나가고 싶다.
기획 의도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연중기획을 편성해 계층, 지역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한다.	장애인들에게 자립의욕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대안을 모색해본다.
주제	이동권, 교육권	이동권, 직업문제	이동권
내용	연예인들과 장애인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생활권과 문화권에서 장애체험을 해보고 이동권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교육권도 함께 짚어본다.	3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장애체험 이벤트, 장애인 직업교육 박람회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이동권의 문제점과 장애인 고용 모범사업장 소개, 박람회 진행사항을 보여준다.	연예인들의 장애체험과 휠체어 농구,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과 이용의 어려움과 문화 접근권의 어려움 등을 보여준다.
방영 시간	4월 18일 10:30~12:00	4월 20일 14:30~17:30	4월 20일 16:10~17:20
대안 제시	대중교통, 문화공간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였다.	고용촉진공단의 정보를 전달하였고 장애인 상담 전화와 장애인 직장연계를 위한 박람회 개최하였다.	국가나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하였고, 대중교통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향후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제시받을 수 있었다.
제작 평가	이동권과 교육권을 중심으로 체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나 시에서 준비 중인 제도를 알아보고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호소력있는 정보전달을 하였다. 그러나 출연자가 서울, 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출연하였고 경제적인 상태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장애체험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직접 장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으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면, 대안에 대한 모색이나 정보가 적었다. 또한 박람회를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지만 직접적인 연계가 아니었고 상담센터의 정보도 자막으로 잘못 처리되어 차질이 있었다.	이동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예인들의 장애체험이 주로 이용되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편의시설을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비교와 제시에 그쳤을 뿐 대안의 모색에 관해서는 미흡했다고 보여진다.

2. 문제점

① “이동권” 으로 한정된 주제

올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공통적 특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생존권과도 연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은 요즘 많은 집회와 운동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4월 한 달동안 다루어진 뉴스의 장애인 관련 보도 중 이동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중과 3개 방송사 평균 40%가 넘는다. 각 방송사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서로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마치 같은 방송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같은 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연예인이 늘 함께 출연한다. 장애인 그리고 인기연예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문제를 가시화한다. 이동권은 일반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의 호기심과 동질감을 이끌어 내기 수월하고 연예인들은 이에 문제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연예인들의 대거 출연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장애문제를 표현할 수 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 방송사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체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접근권에 관한 어려움 등이 주요 내용이었고, 이로 인해 내용, 구성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방송제작진의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장애계는 이동권이 아니라도 시급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같은 주제로 매해 반복되는 방송을 준비하는 것은 사전준비없이 기획하고 방송하는 단일한 제작 시스템의 문제와 방송사의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② 문제는 있으나 미비한 대안

사회의 문제가 산수 문제처럼 답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 어려운지라 방법을 몰라 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답인지 누구나 쉽게 정의를 내리지만, 풀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 2004년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은 이제까지와의 방송과는 달리 대안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정책적 개선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3개 방송사에서 몇차례 시도되던 서울시청과의 인터뷰나 SBS에서 대안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여주었던 방송프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의 내용(이동권외)에서는 뚜렷한 대안의 제시보다는 역시 미담화시키거나 이벤트를 마련해주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각 방송사별로 몇 가지 사례와 문제점을 비교해보면 이리하다.

	사 례	문 제 점
KBS1	이동권과 교육권 등 제한된 주제를 다루기는 했으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었다.	문제점 제시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찾아 자료로 제시하였다.
MBC	(1) 김장훈씨와 함께 나온 아이는 야구 보는 일이 소원이라 하였다.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야구장 이벤트 (2) 직업채용박람회를 열어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 소개 (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고 나레이션은 말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아이는 엄마 없이는 쓰러진 채 몸조차 가눌 수 없이 혼자 방을 지키는 하루가 반복 될 것이다. (2) 장애인의 자립의욕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획의도로 제작되었지만 실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직업의 연계가 되지 않았다. (3) 잘못된 전화번호 소개
SBS	(1) 활동보조인과 지체장애인의 생활을 보여줌 (2) 선진국의 사례를 보여줌	(1) 활동보조인의 역할과 국가의 부담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구체적 대안을 제시 받을 수 없었다. (2) 선진국의 사례를 보여주었으나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을 미담화시키고 현재 편의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어려움을 미담화시키고 함께 분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좀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다룸으로써 행정적 대안이나 사회적 시선 등에서 바람직한 방향들을 차분하게 조명해 주는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 방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접하는 방송이다. 장애인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고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③ 지체장애인에 한정된 출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의 종류는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각각 신체장애 12가지, 정신장애 3가지가 있다. MBC "2004 함께 가는 세상" 에서 기획된 장애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은 두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의 날이 아니다. 경증 지체장애인들도 계단을 걸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더 눈을 돌리면 시각장애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하고 혹 나갔다가도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잘못 인식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신지체 아동이 혼자 하교중 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지하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동권에서도 이렇듯 많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휠체어를 선택한 이유는 시청자들에게 "장애인 보여주기" 식으로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닐까? 방송제작진의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은 방송 전반에 이와같이 많은 비전문성과 문제점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④ 번갯불에 콩 구워먹다

MBC "2004 함께 가는 세상" 이 기획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1부 같은 경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하는 방송이었지만 준비에서 행사까지는 열흘도 안되는 시간이 걸렸다. 장애문제에 대해 단체와의 고민과 접근이 필요했겠지만 무리다 싶을 정도의 재빠른 준비과정들을 보면서 방송의 힘에 대해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어찌어찌 코스를 정하여 장애체험을 할 수는 있었지만 홍보기간의 미흡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SBS “나는 나가고 싶다”는 출연자의 나이를 무려 10살이나 부풀려서 내보내는가 하면 영화보기가 취미인 이 출연자를 처음 영화를 보러 왔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설정하였다.

방송의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식의 제작방법은 이렇듯 여러 가지 성의 없는 장면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보여주기식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랜 기획의 고민이 있었다면 장애체험이 충분한 홍보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하에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고, 다큐를 드라마처럼 각본에 맞추어 촬영하고 방송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4월이 되면 으레 기획해야 하는 방송, “장애인의 날”에 반짝 내보내야 할 의무적 편성에서 복지사회를 꿈꾸게 만드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었으면 한다.

IV. 결론 및 제언

3개 공중파 방송사에서 제작된 장애인의 날 특집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보았다. 몇 가지 제언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나 보다 좋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내가 만드는 나의 이야기” -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획되는 방송

앞에서의 모든 문제점들의 원인은 바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너”가 아닌 “나”의 입장에서 모든 시나리오가 쓰여졌다면, 나아가 사회가 “나”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방송제작진이 장애를 직접 안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들의 입장을 섬세히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강원래씨 같은 경우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진행자(SBS 나는 나가고 싶다)와는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상황들을 풀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다. 장애인의 입장은 장애인이 가장 잘 안다.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접근하려면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인 기획이나 방송참여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반복되는 “수박 겉핥기”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전달

수박 겉핥기식의 방송은 매해 장애인의 날 모니터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지적된다. 장애인에 대한 깊고 심도 있는 접근이 아닌 “장애인의 날이니까”라는 수박 겉핥기식의 행사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는 언제까지나 같은 지적을 반복하게 만들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잘못된 정보도 그 가치성을 상실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끊임없는 방송이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보성의 면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비장애인의 대부분은 장애의 종류나 등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름의 장애로 불러야 할지(예로 정신지체를 정신장애로 명하는 웃지 못할 경우를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다.)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프로그램을 재미있고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것 또한 매체의 의무이자 역할이라 생각한다. 서로간의 이해는 정보에서 이루어진다. 기획자들이 조금만 시야를 넓힌다면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은 보다 양질의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방송은 요술램프 - 일회적인 관심이 아닌 깊이 있는 고민과 접근

먼저 방송의 기획의도를 표에서 보자면 2004년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의 대부분은 장애인 문제의 실질적 접근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을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실제 기획과 구성은 기획의도를 무색하게 만든다. 기획의도는 보다 문제해결 방향으로 변하였으나 그 구성은 2003년이나 2002년의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화려한 연예인들을 내세워 만나는 장애인들과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대중교통들까지 변화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 새로운 아이템을 시도 했던 MBC의 직업채용박람회는 기대와는 달리 직업을 소개하는데 그쳐 그 직업을 연계시키겠다는 애초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 결국, 박람회 찾은 장애인들에게 허무함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방송은 장애인의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더 이상 예쁘고 착하게 포장된 장애인의 이야기를 장애인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는다. 실질적 접근과 고민을 하겠다는 기획 의도는 이미 이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정해진 것일 것이다.

장애를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접근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다. 장애인이 보지 않는 장애인의 날 방송은 과연 어떠한 의미로 비춰질지는 너무도 뻔하다. 이제는 보여주기식의 방송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획의도에 맞추어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이는 제작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4.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보장

비교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모니터한 3개의 프로그램 말고도 나머지 6개의 장애인의 날 기획 프로그램들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모두 직장에 있을 시간이거나 잠들어 있을 시간에 방송되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봐야 하는 방송인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장애인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구성원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시청자들이 접하기 힘든 시간에 방송된 것은 편성적 배려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기드라마의 재방송이나 스포츠 중계는 흔히 말하는 황금시간대에 종종 방송되곤 하는데, 1년에 한 번 뿐인 장애인의 날 행사는 왜 편성표의 가장자리를 차지하여야 하는가?

이런 기획프로그램이 모든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될 때 폭넓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자녀들에게 내가 아닌 소외층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3년 동안의 보고서(장애우방송모니터단)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또 반복되고 있다.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적과 이 지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 모두가 필요할 것이다. 내년에는 매해 반복되는 같은 내용의 지적들이 거론되지 않는, 특별히 장애인의 날이라 해서 방송되는 특집프로그램에서만큼이라도 사회와 방송에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제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04년 장애인의 날 특집프로그램 보고서를 마친다.

○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보고서

■ 모니터 취지

희귀병과 장애를 가진 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 위원회를 통해 타 이웃돕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접근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장애인관련 방송이다. 그러나 장애인권적 관점에서 진정으로 좋은 방송프로인지 관심을 갖고 작년에 이어 모니터하였다.

■ 모니터 기간

2004년 5월 한달간(41~44회분)

■ 모니터 대상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매주 토, 밤 11:55~12:55)

■ 모니터 내용

- 총평
- 각 방송분 보고서
- 결방에 대한 논평

= 총평 =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총평

이 태 준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은 기존의 최루성 이웃돕기 프로그램과 달리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 위원회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의료, 경제, 심리, 지역사회 등 다양하게 도움을 주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색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소재로 하여 장애란 용어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장애의 특징을 세심하게 담으려 하고, 장애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되 장애인을 어둡고 불쌍한 존재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곁들여 담담하게 그리고자 하여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렇기에 방송계 내지 일반 시청자 단체에서 좋은 방송프로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과 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관점, 인권의 관점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하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솔루션 위원회와 황현정 진행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장애인을 무능력하게 수동적인 존재로 부각시킨다.

물론, 방송의 기획의도는 장애를 가진 이와 가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방송이 나가기 전 장애로 인한 현실을 이겨내려 했던 개인과 가족의 고민과 노력은 무시되고 있다. 솔루션 위원회를 통해 의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도와주고 있지만 이러한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인 도움은 “장애인은 곧 무능한 자”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황현정 진행자가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장애인이 아닌 황현정 진행자가 나서서 것 또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는 입장을 강조하는 구성이라 하겠다.

즉, 솔루션 위원회와 황현정 진행자의 개입은 장애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설상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준다하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정한 도움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솔루션 위원회의 진단으로 장애가 ‘문제’라 규정되고 개인을 주인공화하는 휴먼다큐식 구성은 장애를 잘못 이해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축소화시키는 오류를 낳는다.

솔루션 위원회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접근은 아예 장애는 ‘문제’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의료적인 잣대로 한정되고, 문제 해결과정에서 경제, 심리, 사회 등 영역에서 감안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장애는 장애인 개인과 가족이 끌어안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이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규정짓는 문제의 대상이 장애인 개인이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며 책임으로 한정시킬 뿐이다. 공공선을 지향하는 방송에서 아무리 휴먼다큐성의 프로라 할지라도 장애를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문제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의식수준이 갈급하다.

마지막으로, 결방에 대한 사과방송이 있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회 결방이 되었다. 본 프로가 시간대가 늦게 방송되는데도 불구하고 애청자의 까페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 프로에 대한 사과방송 또는 관련 프로 홈페이지 사전예고가 전혀 없다는 것은 시

청자의 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이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전문가 중심의 솔루션 위원회에 출연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이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은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되 도와주는 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만능해결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였으면 한다. 이는 장애인이기 앞서 한 인간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며, 정말 원하는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장애문제를 사회문제로 환기시키도록 방송에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휴먼 다큐멘터리이기에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클로즈업하면서 스토리를 풀어갈 여지가 많다. 그러나 장애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같이하고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제시할 때 보다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결방을 자제하고 결방에 대한 사과방송 내지 사전의 공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본 프로그램만 아니라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요, 책임이다.

아직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정과 시혜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방송이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매개체로 역할한다. 방송 자체가 비장애인 중심의 제작진이기에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송은 장애

인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고민하고 그려내며 장애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그만큼 방송의 영향력은 우리 일상 다반사에 막대하기 때문에 더욱 책임의식이 강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감동일 수 있는 방송,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함으로 그려낼 수 있는 방송이 제작되기를 기대한다.

= 각 방송분 보고서 =

재환아 닌 할 수 있어

- 방송날짜: 2004. 5. 8(41회)
- 작 성 자: 최 영 식

○ 긍정적인 평가

1. 정책적인 면을 언급하여 장애인 가족의 문제가 사회적 책임에 있다는 것을 환기

재환이 가족을 돕기 위해 황현정 아나운서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재환이 아빠의 취업으로 인해 정부지원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레이션)

황현정 : 이런 복지제도가 일을 하려는 분들을 좀 격려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게 아쉬운 점이 많아요.

○ 부정적인 평가

1. 장애를 부각하여 '장애인=무능력한 이' 로 강조하는 스토리 전개

방송을 보면 재환이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로 나온다. 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성이 제약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방송에서 이

를 강조하여 재환이는 무능력한 자로 보여 동정심을 유발한다.

가령,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재환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짝에게 책 좀 들어주라는 장면에서 남이 책을 대신 들어줄 정도로 재환이의 장애가 심하지 않음에도 친구의 도움이 필요있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또, 등교길에 재환이가 책가방이 무거워서 친구에게 대신 들어 달라는 생각으로 친구의 집에 들렀지만 친구가 먼저 학교에 가는 바람에 등교 시간에 쫓기는 재환이가 제작진에게 울먹이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에서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였다.

2. 장애인 출연자의 속사정을 모두 헤아리듯 잘못 해석하는 나레이션

시간 (분/초)	장 면	나레이션	문제점
00/00~ 00/20	혼자서 술래잡기 놀이한 재환이	술래가 없어도 난 숨바꼭질을 좋아서 뭐든지 숨긴다...내 얼굴도 그리고 마음까지...	장애가 있으면 숨겨야 하는 소외된 대상으로 동정심을 유발함.
01/44~ 03/07	등곳길에 무거운 책가방을 들어줄 친구가 없어 제작진에게 울먹이는 재환이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이대로 무사히 갈수 있을까?...책가방도 감당하지 못한 자신을...재환이는 밉다.	장애로 인해 책가방을 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장면 자체가 장애인을 '무능력한 이'라는 편견을 고착시킬 수 있음.
03/08~ 04/00	친구의 도움으로 책을 읽는 재환이	잠시 잊고 있었는데...불편한 왼손이...이런 사항들을 일깨워준다.	장애를 부각시킴(장애를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짐-할수 없음을 강조)

표. 장애를 잘못 해석하는 나레이션의 예

방송에 나오는 나레이션은 출연자의 심경이나 생각 등을 시청자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적 사고에서 장애인 출연자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접근하고 때로는 장애를 잘못 이해하는 나레이션을 사용하여 문제이다.

3. 재환이 아빠의 취업을 빼고 다양한 지원(?)을 하는 솔루션 위원회

방송에서 황현정 아나운서를 통해 재환이 가족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재환이 아빠의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이 미약함을 언급하여 고무적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솔루션 위원회의 지원책(재환이와 엄마의 물리치료 지원, 엄마의 디스크 수술지원, 아빠의 무릎수술 지원, 재환이의 가정방문 학습지 지원연계, 재환이의 공부방등 환경개선 지원, 재환이의 미술교육 지원)에서는 재환이 아빠의 취업을 고려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위원회에서 재환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빠가 직장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뿐 실질적으로 재환이 아빠에게 의료적 지원을 해주는 선상에 그치고 있다. 예전에 15회 “18살 미경이의 다시, 처음” (2003.9.27) 의 경우 작은오빠에게 바텐더교육을 알선해 주는 등 취업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솔루션위원회가 정말 생계가 어렵고 재환이의 가족을 1회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방안이 아빠의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인 혜택을 주는 정도로 그쳤다는 것은 타이웃돕기 프로의 이벤트적인 지원과 별 차이가 없다.

○ 제 언

1. 장애로 인한 불편함으로 무능함을 조장하기보다 가능성을 강조하자

휴먼 다큐란 명목으로 비장애인 시청자에게 감동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의 불편함을 부각시켜 무능력한 사회구성원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일상에서의 장애의 불편함을 섬세하게 드러내어 장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방송제작진의 몫이다. 또한 나레이션보다 장애인 출연자나 부모의 인터뷰의 비중을 높여 방송제작진이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할 수 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 진솔함이 감동이 되는, 말 그대로 휴먼다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아가 장애로 인한 불편함보다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의 밝고 평범한 삶을 조명하는 방송이길 바란다.

2. 정말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정책적인 접근을 의식하고 고민하는 솔루션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

솔루션 위원회는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이 타 이웃돕기 프로와 차별화된 특성이다. 이러한 접근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첫째, 1회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의료 혜택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확장되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인 경우 현실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엄연하게 존재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언급한다면 자칫 공허하게 느껴질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사회와 정부에 던짐으로써 이웃돕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공헌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여할 것이다.

섬소녀 지인이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

- 방송날짜: 2004. 5. 15(42회)
- 작 성 자: 김 재 우

○ 긍정적인 평가

1.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교육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스토리

나레이션)

4 '10 " 매일 아침 걷기도 힘든 지인이가 맨몸으로 학교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방을 들어다 주는 친구들 덕분이다.

4 '34 " 초등학교부터 늘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소풍가는 장면이나 체육시간 장면들을 보더라도 지인이 반 아이들은 지인이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에 지인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가서 서로 떨어져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 아이들은 지인의 사정도 잘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도 몰랐을 것이다.

2. '섬' 이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혜택의 문제점을 지적

예)

13 ' 20 " (나레이션)통영에서 1시간여 배를 타고 도착한 육지도, 바다 끝 섬이라 환경과 어려운 형편 때문에 지인은 지금껏 병원 한 번 못 가봤습니다.

32 ' 10 " (나레이션) 수술 후 섬 안에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인터뷰) 육지도 보건소장

- 현재 보건지소의 인력은 5-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별히 방사선을 설치해서 진료하는 것은 아직은 안되겠습니다.

전국에 보건지소에 시설과 인력에 문제로 엑스레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것을 볼때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한 의료혜택의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협조가 중요함을 시사하여 잔잔한 감동

나레이션)

32 '43 " 지인이가 수술 후 휠체어를 타고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모였다. 수술 후 지인이의 치료를 위해서 통영에 가서 검사 받고, 수협에서 배는 무료로 탈수 있게 해주었다. ..(중략).. 지인이를 학교에 등.학교는 마을 이장을 비롯해서 동네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대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 부정적인 평가

1. 지인이의 장애를 수동적인 성격의 장애인 이미지로 접근

예) 등굣길 장면

: 지인이의 운동화를 들어주는 친구에게 제작진 인터뷰

제작진) 지인이 들 수 있는데 들어주는 거야?

지인) 빼앗아서 들어줘요.

제작진) 왜 그래?

친구) 왜냐면요. 학교에서요. 아이들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무거운 물건들고 가면 도와주게 되어 있어서요.

지인) 근데 왜 운동화를 도와 주냐고.....

방송제작진의 질문이 친구의 대답을 유도하는 느낌이다. 즉,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도움을 주려한다는 메시지를 꼬집어내려 하는 것은 억지도움을 드러내는 동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위의 내용만 봐도 그렇다. 지인이의 대답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표정이 보인다. 그럼에도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친구로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 양 방송이 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2) 체육시간 장면에서의 나레이션

뭐든지 빠지지 않은 지인인데... 일단 피하는 게 상책, 뭐든지 챙겨주는 친구들인데 이럴 땐 과하다 싶다. 친구들 성의를 봐서 눈 딱 감고 시도해 보지만...(중략)...이럴때 역시 마땅히 숨을 곳도 친구들 등이 최고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드러나는 장애인의 수동적인 이미지가 이번 장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장애인은 못한다는 이미지와 자신이 선택하기보다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강하다. 체육시간 활동 자체가 비장애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지인이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지인이의 장애 때문에 체육시간에 소극적이라 표현한 것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 제 언

1. 장애인 출연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체적인 면을 드러내도록 방송돼야 한다.

거의 장애인 출연 방송을 보면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야하고 보살펴야만 하는 걸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회의 인식도 장애인은 선택할 것도 없이 무조건 도움만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방송에서는 친구들이 장애인이라고 따돌리지 않고 함께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좋다 하지만 무조건 도움을 받는 모습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모습과 자신이 선택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2. 지역적 한계를 떠나 지인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솔루션이어야 한다.

지인이 사례에 대한 향후 솔루션은

1. 2차, 3차 수술의 지원 약속과 재활치료를 무료로 해줄 것을 약속함
2. 지인이의 옷과 엄마를 위하여 재봉틀을 지원 연계
3. 지인이의 친구들이 영상 메시지를 선물

이 세 가지이다. 지인이 개인에게 주는 지원은 의료적인 혜택에 치중되고 가급적 지역내에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의료적인 면 외에 지인이 나이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도움을 표방하는 솔루션이라면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장애 특성을 감안한 섬세한 교육에 대한 지원, 도시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는 부분 등이야말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진정한 도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9살 주현이의 새로 지은 집

- 방송날짜: 2004. 5. 22(43회)
- 작 성 자: 정 창 욱

1. 장애와 불행한 상황들을 강조하는 방송이었다.

“주현이의 새로 지은 집” 방송은 전체적으로 주현이의 장애와 불행한 상황들이 강조되는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 시작하는 첫 장면부터 주현이의 과잉 행동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레이션 또한 “주체 없는 행동은 뇌의 이상으로부터 오는게 아닐까”라는 표현을 하여 주현이의 정확한 병명과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청자로 하여금 “주현이가 정신지체 장애가 아닐까” 식의 장애를 추측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주현이의 경우 과잉행동의 원인이 폭력적인 가족상황과 방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의 여지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된다. 또한 주현이가 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긍정적인 모습이나 나레이션 표현이 상대적으로 적고 과잉행동을 하는 모습과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배경음악도 우울하여 주현이의 장애와 불행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2. 주현이의 장애와 불행이 주현이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주현이의 과잉 행동과 정서적 불안감의 원인은 폭력적이고 불행했던 가정환경과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임된 채 자라왔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할 주체는 주현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주현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과 사랑인데 그보다는 혼자 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바라본 것이다. 아직 어린 주현이가 감당해야 할 짐처럼 비추어지는 방송의 컨셉이 안타까웠고 장애 관련 방송의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방송 마인드의 한계를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3. 당사자의 의견이 없는 전문가 중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현이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전문가들이 모여 도움을 주는 과정은 의미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분명, 엄마가 최소한 주현이에 대해 모성애를 갖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만 모여 엄마가 주현이를 키울 수 없을거라 판단하는 것은 방송의 전문가 중심의 마인드로 비추어진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 언

1. 장애와 불행이 부각되는 동정과 극복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공유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으로 진취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방송은 한 개인의 상황과 불행을 알리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주현이가 겪는 장애와 불행한 삶을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현이의 과잉행동의 원인이 폭력적인 가족상황과 방임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아동학대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어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2. 전문가 중심이 아닌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전문가 중심의 판단과 해결방향은 자칫 당사자의 주체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진정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도움을 놓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임을 잊지 않고 당사자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은찬이, 금찬이의 젓가락 행진곡

- 방송날짜: 2004. 5. 29(44회)
- 작 성 자: 송 효 정

○ 긍정적인 평가

1. 황현정 진행자의 개입이 적어 주인공의 이야기 중심의 스토리가 펼쳐짐

이번 방송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별도로 솔루션 위원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황현정 진행자가 도움을 구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덜 방송되었다. 덕분에 주인공인 은찬이, 금찬이 형제의 이야기가 부각되어 방송되었다는 점은 솔루션 위원회가 없이 스토리만을 가지고 주인공의 주체적인 시선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갈 첫단추를 열었다고 생각한다.

2. 주인공의 피아노 연주회가 주인공의 자립의지를 보여주어 감동적

보통 병원에서 장애아, 환아를 위한 이벤트라 하면 외부에서 행사를 마련하여 보여 주어 동정적인 관점과 클로즈 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은찬이가 평소 피아노 연주를 꿈꾸고 있고, 이러한 주인공의 꿈과 재능에 맞게 자체 피아노 연주회를 열어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하나의 이벤트라 하더라도 주인공 당사자 입장에서 주인공이 주체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시도가 계속 방송되었으면 한다.

○ 부정적인 평가

1. 주인공의 과도한 노출은 인권침해

금찬이가 신변처리를 잘 못하여 씻기는 장면에서 과도한 노출이 보였다. 아무리 아동이라 할지라도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요, 인권 침해이다.

2. 상담자는 하이 앵글로, 상담받는 주인공은 로우앵글로 처리하여 약자의 상황을 강조, 이미지화

은찬이와 금찬이 형제간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자와 만나는 장면에서 양자를 카메라는 달리 비추고 있다. 이러한 앵글의 차이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구분짓고 강조한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카메라 앵글서부터 방송제작진은 고민해야 한다.

3. 타방송에서 방송된 내용을 다시 가공하였다.

은찬이와 금찬이 이야기는 지난 12월 KBS의 모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다. 그렇기에 이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인 솔루션위원회가 방송되지 않고 재탕한 게 아닐까란 의혹이 든다. 방송소재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제 언

1. 장애인 주인공의 자립의지를 강조하는 방송이길 바란다.

은찬이의 피아노 연주회를 담은 병원선은 이번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방송은 이벤트식의 억지 감동이 아닌 주인공의 자립의지를 보여주는 강조하는 내용에서 감동을 찾아야 한다.

2. 나레이션의 과도한 해석으로 주인공의 상황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인공의 상황이 나레이션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위험하다. 나레이션을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전달력을 높인다는 효과에 앞서서 과도한 나레이션으로 인해 주인공의 상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장애가 고통이고 개인의 숙명인 것처럼 치부될 수 있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인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은 방송제작진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논평 =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의 잦은 결방에 대하여

김 순 재

TV를 시청하면 대부분 오락 프로그램처럼 재미 위주로 보여주는 프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일반 오락 프로그램의 비교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을까?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처럼 늦은 시간에 방영하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굳이 결방 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이다.

날 짜	대체 프로그램
1월 24일	설날 특선 영화
4월 10일	패티김 45주년 기념대공연
4월 17일	LPGA 한국여자들의 도전기
5월 1일	특선 영화
6월 5일	6.5 보궐선거

표. 결방시 나왔던 프로그램 리스트 (2004. 1~6월 기준)

1. 장애인 날이 있는 4월달에 결방이 잦았다.

위의 표와 같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 전후로 4월 10일과 4월 17일의 연속 2주씩이나 결방을 했다. 1년 중 장애인의 날이 있어 장애 관련 방송이 유독 많은 달이 4월이

다. 이처럼, 한창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을 시점에 본 프로와 같은 고정 프로그램이 2번씩이나 결방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에 대한 방송제작진의 인식수준이 드러나는 증거이다.

2. 결방하는 대신 오락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1월 24일에 대처 프로그램으로 설날특선 영화가 방송되었다. 명절이라 가족 단위 시청자가 모여 있을 시점인데 영화도 좋지만 장애 관련 프로그램을 볼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장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지 않을까?

4월 10일 “패티김 45주년 기념대공연”의 경우 특정 유명 연예인의 공연 때문에 장애 관련 프로가 밀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방송 후 다음 프로그램도 “쇼 게임쇼” 라는 게임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다.

4월 17일 “LPGA 한국남자들의 도전기”는 지나간 골프 스포츠의 명장면 또는 극적인 장면을 편집, 녹화해서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생방송도 아닌 지나간 스포츠 내용을 굳이 이 시간에 방송하여 의미를 되새기면서까지 왜 장애 관련 프로가 결방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5월 1일 특선 영화도 오락프로그램이다.

6월 5일 6.5 보궐선거이다. 대선이 아닌 보궐 선거를 굳이 따로 방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보궐선거에 관련 정보는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을 방영하면서 자막처리를 하여 선거 결과를 보내고 별도로 뉴스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락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3. 결방에 대한 사과방송과 사전 예고가 없다.

장애 관련 방송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방송량이 많지 않고 시간대가 늦게 방송되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를 시청하는 애청자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 프로에 대한 사과방송 또는 관련 프로 홈페이지 사전예고가 전혀 없다는 것은 시청자의 불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줄 의무와 약속이 있다. 장애관련 정보도 그 많은 정보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시청자에게 장애관련 정보를 부각시켜 특정 프로그램을 배제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오락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뒷전에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 자주 방영되고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방송되어야 이 사회에서 안녕과 번영을 바라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결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부득이 결방이 될 경우 시청률이 많은 저녁 시간대나 본 프로의 방송시간에 TV자막으로 결방에 대한 사과방송을 전하고, 프로 관련 홈페이지 등 결방 예고를 미리 하여 시청자의 불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

○ 사랑의가족 보고서

■ 모니터 취지

지상파 방송의 유일한 장애인 전문 방송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고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화합하여 살아가는 사회를 그리고자 한다. 이러한 본래 방송취지를 적절히 녹여내었는지, 장애인 출연자에 대한 지원과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하였다.

■ 모니터 기간

개편전: 2004년 9월 한달간
개편후: 2004년 11월 15~18일

■ 모니터 대상

KBS 사랑의 가족(매주 토 11:30~12:00 → 매주 월~목 저녁 5:30~5:55)

■ 모니터 내용

- 개편전 총평
- 각 방송분 보고서
- 장애 대상 프로그램에서조차 소외된 장애인 진행자
- 개편후 총평

개편전 사랑의 가족 총평

- 모니터기간: 2004년 9월 한달간
- 작성자: 김 언 식

장애인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 중에 무엇이 있을까?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살아가야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받아야 함은 삶의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은 그 역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첫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9월 4일 ~ 25일 방송분에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애인들의 행사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해피통신 코너와 교육이나 직업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알림방코너를 구성해 놓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알 권리에 부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 "소리울림밴드 공연" 소식은 기존에 정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연출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코너의 특성을 잘 살려내 주고 있다. 또한,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시청하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자극시킬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안으로, 안으로!!" 가 아닌 "밖으로, 밖으로!!" 를 대신 외쳐주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방송 본연의 역할인 것이다.
2.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인라인타기 행사" 소식은 장애를 갖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인라인 타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함으로써 인라인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하는 동기부여를 주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 25일(411회)까지 방송해 오면서도 바뀌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볼 수 있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기 때문에 <사랑의 가족>은 비장애인 중심적 관점과 접근이 아닌 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 인간승리,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정신지체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라산 도전기”에서 성인 장애인에게 어린애 취급하는 태도나 호칭문제라든가 나레이션, 리포터의 인터뷰 대상에 대한 태도, 한라산을 등정하는 장면에서의 힘들어하는 얼굴 모습만 여러 차례 클로즈업시키는 의도적인 연출 및 편집 등이 보여졌다.

이렇게,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어린애 같고 나약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들만 보여주다 보면, 격리된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나 부담스런 존재, 알봐도 되는 사람들이란 잘못된 인식들을 전파시키는 역할밖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한라산 도전기를 소개하는 전체적 흐름이 장애 대상 프로그램임에도 일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담아내는 시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왜소증을 갖춘 한심해, 두심해 부자의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는 장애를 갖춘 사람이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코너를 접하면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장애를 갖춘 사람이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대상이 되거나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승리를 이루어 낸 위대한 인물로써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대단한 성공이라 결론내리는 단선적인 설정과 연출이다. 장애인 이야기가 미담으로 전락되어 소개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경아씨가 착하고 성실한 직장인으로 그려지면서도 주인공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인터뷰가 미흡했고,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덜 묻고 나레이션으로 제작진의 생각으로 일방적인 처리하였다. 또한, 일을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의 가족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는 장면은 자연스럽지 못한 연출이었다는 점이다.
- 시각장애인 가수는 특집방송에 걸맞지 않게 평가되었다 명절에 즈음해서 특집인지 특정인에 대한 특집인지 알 수 없고, 장애의 불편함을 강조하거나 호칭에서 항상 ‘시각장애인’ 을 꼭 붙여서 발언함으로써 장애를 부각해서 장애인 시청자에게 위화감 내지 불편함을 안겨줄 우려가 많다.

셋째, 현재 프로명과 꼭지명이 장애를 온정주의적으로 보는 가치가 반영하기 쉽다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기 쉽다.

넷째, 장애인 관점에서 깊이있는 접근과 흥미로운 구성으로 시청자를 어필하기를 바란다.

- 시간에 비해 코너수가 많고 단조로운 구성으로 평가된다. 평균 3~4개로 5~7분 사이의 길이의 꽃지로 이루어져 보는데 지루할 정도의 내용이 많다.
 - 구성: 스튜디오-eng-스튜디오
 - 미담 중심이 아닌 출연자들의 소중한 경험을 다루어 장애가진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장애 없는 이들에게는 다름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장애 대상 프로그램이 돼야한다.
 - 장애 가진 이를 스튜디오에 출연시켜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토크쇼로 한다거나 수화를 배우는 데 단순하게 문장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롤플레이션으로 구성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청각장애인으로 하며, 형식적으로 문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화를 배우는 것 자체가 청각 장애인의 일상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에서 좀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 대상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 단지 출연만으로는 지금까지의 반복되는 모순점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출연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장애 관련 프로그램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조진행으로 출연시킴으로써 신선하고 좀 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를 했으나, 주체적인 장애인의 이미지를 격하시키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한석준 씨의 역할은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9월 11일(409회)에 반영된 방송에서 한석준 씨는 총 3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늘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이며 질문 또한 쉽고 폐쇄적이다.

1. 첫인사

“한 씨 의상이 가을 분위기가 나고 좋네요.”

2. 한심해, 두심해 부자 이야기

“두 부자가 함께 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죠? 석준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3. 수화배우기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석준씨도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보는 것과 같이 질문이 매우 단순하고 폐쇄적이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방송이기 때문인지 한석준 씨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도 있다.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한석준 씨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따로 가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부각된다. 한석준 씨의 출연이 방송의 생색내기 식이 아닌지 심도 있는 고민과 한석준 씨가 빠르게 진행되는 방송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작진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를 제공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인 KBS의 장애대상 프로그램이면서 취지와는 달리 유독 시각장애인(전맹 또는 약시)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비록, 제3라디오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다루는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시(청)취하고 싶은 시각 장애인도 있다.

요즘 타 방송사에서 낮 시간에 실시하는 드라마 화면 해설 서비스를 보면 이러한 방송 콘텐츠와 더불어 방송접근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

408회 사랑의 가족

- 방송날짜 : 2004년 9월 4일
- 작 성 자 : 최 영 식

○ 방송 내용

1. 해피통신 코너: 정신지체 탁구대회, 정신지체 소리올림픽 공연, 중도장애인의 재활 가이드북 소개
2. 내일은 희망: 정신지체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라산 도전기 소개.
3. 함께하는 우리: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 불가.

○ 긍정적인 평가

1. 해피통신코너의 역동적 연출에서 이 프로그램의 힘을 엿볼 수 있다.

예) 해피통신코너 - 정신지체 탁구대회, 정신지체 소리올림픽 공연, 중도장애인의 재활 가이드북 소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애인들의 행사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해피통신 코너와 교육이나 직업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알림방코너를 구성해 놓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알 권리에 부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해피통신에서의 소리올림픽 공연 소식은 기존에 정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연출로 생동감있게 전달하여 코너의 특성을 잘 살려내 주고 있다. 또한, 정보전달차원을 넘어 시청하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자극시킬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안으로 안으로!!” 가 아닌 “밖으로 밖으로!!” 를 대신 외쳐주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방송 본연의 역할인 것이다.

2. 적합한 논제와 심층적인 취재로 보도 방향 돋보인다.

예) 함께하는 우리 코너 -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의 문제점을 다룸

함께하는 우리는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코너다. 즉,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장애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코너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08회의 함께하는 우리에서는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준 듯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 우선,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던 그러나 꼭 알고 있어야 했던 문제인 청각 장애인 1종 면허 취득 불가란 논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배경부터 중도장애가 될 경우 자격증 박탈, 경찰청 면허계장 인터뷰를 통한 대안 모색 까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다뤄주고 있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입장, 정책담당자의 입장, 전문가의 인터뷰 등의 자료화면을 구성해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접근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대안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취재방향이 돋보였다. 더불어, 이 문제를 장애인의 평등권과 생존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부정적인 평가

1. 제작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시각적 접근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예) 성인장애인에게 어림에 취급하는 태도나 호칭문제라든가 나레이션, 리포터의 인터뷰 대상에 대한 태도, 한라산을 등정하는 장면에서의 힘들어하는 얼굴 모습만 여러 차례 클로즈업시키는 의도적인 연출 및 편집 등이 보여졌다.

이렇게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어림에 같고 나약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들만 보여주다 보면, 격리된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나 부담스런 존재, 알봐도 되는 사람들이란 잘못된 인식들을 전파시키는 역할들 밖엔 남는 것이 없을 것이

다. 특히, 이번 한라산 도전기를 소개하는 전체적 흐름이 장애 대상 프로그램임에도 일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담아내는 시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장애관련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차별성 없는 연출이나 구성, 신중하지 못한 접근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시청자들의 뇌리 속엔 오히려 더욱 뿌리 깊이 박혀 편견의 잣대로서 일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 신파조로 일관된 멘트 - 지나친 감성적 연출

예) 리포터의 첫 소개 멘트: “눈물없이 볼수 없는 도전기”

힘들어하는 모습들과 겹쳐지는 멘트: “다들 너무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3번 반복

정상에서 리포터의 멘트: “불가능을 극복하고 도전기에 성공한 이 기분”

스튜디오 MC 멘트: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상의 편견에 대한 도전장”

신체장애인의 동반을 방송소재로 할 때는 등산의 즐거움보다는 장애에 따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제작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신체장애의 경우, 등산 자체가 어려운 도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라산 도전에 참가했던 정인지체장애인들은 행동적 제한이 거의 없는 비장애인과 비슷한 조건이었고, 애초에 한라산 도전의 의미는 정인지체장애인들이 시설생활에서 독립하기 전에 용기를 내고자 산행을 계획했었다. 그렇다면 화면 속 그들은 자연 속에서 세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이 연출됐어야 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현상만을 읽어주는 객관적 구성이 필요했다고 본다. 또한 사전 훈련과정이나 계획을 세울 때의 설레임 등의 대화 내용을 담아내주었으면 훨씬 생동감도 있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융화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신파조 일색의 멘트와 연출로 구성되었을 경우 자칫 그들의 도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 제 언

1. 제작적 차원에서 의도적 연출이 필요하지만, 제작진의 인식의 잣대로 연출되어진 화면보다는 좀더 장애인 입장에서 신중하고 존중되어지는 영상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장애관련 프로그램에서조차 잘못된 편견들을 타파해주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사회에서는 더욱더 장애인들에 설 자리는 좁아져만 갈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장애관련 프로그램의 역할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어울림이다.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의 바탕아래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주는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다 활기차고 당당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 산이란 소재를 장애인들이 도전해야 할 사회의 편견의 벽으로 상징화시키기보다는 친화적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큐 중엔 자연에 도전하는 아이템으로 제작되어진 작품들도 많다. 이러한 아이템들이 지향해야될 방향은 자연친화적, 즉 자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자연 치유적 입장을 자연스럽게 담아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번 ‘한라산 등정기’ 처럼 도전기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존의 전개방식은 시청자들이나 장애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제작진들이 빨리 인식해줬으면 한다. 앞으로 극복차원에서의 이벤트 성을 탈피한 자연의 아름다운 영상과 더불어 그것을 만끽하며 즐겨워하는 자연친화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전하는 장애인들과 시청자 사이의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09회 사랑의 가족

- 방송날짜: 2004년 9월 11일
- 작 성 자: 목 미 정

○ 방송 내용

1. 내일은 희망: 왜소증을 갖춘 한심해, 두심해 부자의 살아가는 이야기
2. 해피통신 코너: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라인타기 행사, 통일 기원 백두산 동반소식,
3. 수화배우기: 배고파요, 배불러요

○ 긍정적인 평가

1. 장애를 부각시키지 않은 일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었다.

“내일은희망” 코너에서는 장애를 갖춘 사람이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코너를 접하면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장애를 갖춘 사람이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대상이 되거나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승리를 이루어 낸 위대한 인물로써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편견으로써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 또한 방송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409회 방송된 “내일은희망”은 장애를 부각시키지 않은 일상적인 분위기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첫 장면을 보면 한심해씨 가족이 함께 시장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함으로써 밝고 평범한 느낌을 주고 중간에 한심해씨와 아들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한심해씨와 그 아들이 함께 축제나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습을 특별하거나 시혜적인 시각이 아닌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잘 담

냈고 비장애인 중심의 유희문화공간(나이트, 디스코텍 등)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활동한다는 것도 신선한 소재였다. 평범하고 밝은 연출은 장애를 더욱 당당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이 코너를 만들어 감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이 주제가 아니라 “삶과 한 인물의 일부분으로써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길 기대한다.

2. “해피통신” 코너에서의 인라인타기의 긍정적 효과 소개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함.

예) 해피통신 -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라인타기 행사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애인들의 행사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번에 방송된 소식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인라인타기 행사”를 소개하였다. 장애를 갖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인라인 타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함으로써 인라인을 좀더 가까이 느끼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 부정적인 평가

1. 제작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예) 「내일은 희망」이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여자 아나운서의 멘트
 “한심해씨 부자에게는 장애도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다.”
 「해피통신」 백두산 동반 소식에서 마지막 나레이션
 “장애를 이겨냈듯이 통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작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진행자들의 대사나 나레이션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장애라는 것은 특별한 그 어떤 것이거나 이겨내야 할 극복대상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의 보편된 그릇된 인식임과 동시에 방송에서 연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장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들의 인식개선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장애 갖은 사람의 보조진행, 그 의미와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

장애 관련 프로그램에 장애를 갖은 사람을 보조진행으로 출연시킴으로써 신선하고 좀 더 장애를 갖은 사람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거라 기대를 했으나,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한 씨의 역할은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번에 반영된 방송에서 한 씨는 총 3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늘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이며, 질문 또한 쉽고 폐쇄적이다.

예) 첫인사에서 “한석준 씨 의상이 가을 분위기가 나고 좋네요.”

한심해, 두심해 부자 이야기 중 “두 부자가 함께 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죠? 석준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수화배우기에서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석준씨도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보는 것과 같이 질문이 매우 단순하고 폐쇄적이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방송이기 때문인지 한 씨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도 있다.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한 씨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따로 가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부각된다. 한 씨의 출연이 방송의 생색내기식이 아닌지 심도 있는 고민과 한 씨가 빠르게 진행되는 방송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작진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 언

1. 올바른 장애인식이 바탕이 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랑의 가족」은 장애를 갖은 사람들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를 갖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고 만들어 가는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감동을 이끌어내거나, 사연을 소개하는 데에 그 역할을 두기 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함께 찾아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에서 먼저 장애에 대해 알고, 이해하며 장애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사 하나, 용어 하나, 카메라 앵글 등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더욱더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뿌리가 깊어야 튼튼한 나무처럼 장애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들의 깊이 있는 역량이 바탕이 되는 진정한 장애 관련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보조진행의 역할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랑의 가족」에서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은 사람이 보조진행으로 함께 하고 있다. 장애 관련 프로그램에 장애를 갖은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좀더 장애인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보조진행자의 역할은 이러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고, 오히려 방송의 생색내기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있다. 물론 방송인으로서의 교육과정이나 능력이 증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진행자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끌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진행자에 의한 게스트와의 대화가 아니라 보조진행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게스트” 또는 “객원 방청객” 수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방송에서 보조진행자가 소외되지